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7, 로마서 16:7-20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6:7-20의 17회기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서 우리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서는 그들이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Junia가 Andronicus와 함께 남성 사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Junias라고 하는데 원래 언어로는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Junia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일부 번역에 비해 Junia는 고대 텍스트에서 항상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문학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성 Junianus의 제안된 수축은 Junianus의 경우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수축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라틴어 이름으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Junianus에서 Junias까지 그런 라틴어 이름은 계약되지 않습니다. 주니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녀가 안드로니쿠스와 함께 사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그룹으로서의 사도들의 의견에 호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활동이 이전보다 더 제한되었던 시대에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조차도 그녀를 여기에서 사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보세요, 바울이 그 여자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문법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어 왔고, 다른 방식으로 주장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집단으로서의 사도들의 의견에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와 누가복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4장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사도라는 명칭이 12사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도라는 용어를 12장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누가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두 번만 사용하지만 로마서 1:1, 로마서 11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13.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라는 용어가 사용된 다른 두 가지 용도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야고보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다른 몇몇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Paul에게는 12명보다 더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Junia는 이전에 더 큰 그룹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Luke가 보낸 70명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글썬,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보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마도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도로 사용될 때마다 그는 항상 교회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메신저로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여기서 그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지 12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순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로마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두 배나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지만, 남자보다 여자를 두 배나 더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할당량을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 16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성들과 관련된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홀다, 열왕기하 22장. 그녀는 요시야 통치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예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이 시점에 이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홀다는 이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한 세기 전이었습니다.

드보라(사사기 4:4)는 온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독특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심지어 그녀가 여자 재판관이었다고 명시하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는 그다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지자와 사사를 겸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무엘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모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선지자적 사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신약의 사도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와 함께 본 모델과 가장 가까운 모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8장에는 이사야의 아내가 있는데, 이사야는 여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약성서에는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가 성전에서 시므온과 짝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는 빌립의 네 딸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아가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가보도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등장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적인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 핵심이

되는 예언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조엘의 말에 덧붙여 말합니다. 그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언을 말씀하시는 성령이 부어지면, 그 영은 모든 성별, 두 성별, 모든 육체, 젊은이와 노인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1장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언하는 여자들을 언급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립싱크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가리고 있는 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르쳤다면 사전 기사 등을 포함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했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은 여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의 다른 곳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여성들과 뵈뵈의 경우 디아코노들이 있는데, 이는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사역 용어는 바울의 동료 사역자들이 그의 저서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사역 용어인 디아코노스와 시너지입니다. 글썄, 이에 반대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키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 35, 디모데전서 2:11, 12.

이제 당신의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회중 찬송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침묵을 지키는 여성에 관한 편지에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여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문화를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문화 전반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는 얼마나 많은 침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글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교회 전통 역시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의 일부는 또한 다음 세기의 교회 전통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최근 몇 세기 동안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와 같이 매우 단호하게 교회 전통을 지지하는 일부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사역, 설교하는 여성. 일부 초기 감리교인들은 일부 여성의 설교를 허용했지만, 특히 19세기에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860년대에는 성결운동에서 여성 사역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통계의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역사상 안수를 받은 여성의 대다수가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이 어떤 교회 전통에 속해 있든, 우리 모두는 어떤 교회 전통에 속해 있든, 여성이 교회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여성이 노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유니아가 사도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뵈뵈가 디아코노스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둘 다 바울의 동료 종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요, 사역팀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주로 여성들에게 사역을 하고, 그가 주로 남성들에게 사역을 한다면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적어도 회중 노래를 부르기 위해 침묵을 지키는 여성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잠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다시 침묵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제가 주장한 바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견해를 모두 살펴보면 로마서 16장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포함하여 로마서에는 그것이 원문의 일부가 아니라는 고든 피의 주장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직접 사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원문의 일부라는 DA Carson의 주장이 적어도 나에게서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텍스트 평론가들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괜찮습니다. 그가 주제를 바꾸고 다시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이미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일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제를 바꾸거나 다시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마도 침묵에 관한 문제는 회중 찬송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침묵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노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왜 질문을 했나요? 고대, 유대교, 그리스, 로마 등 어떤 종류의 강의 환경에서든 사람들이 질문으로 강의를 중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적절했습니다.

일부 질문은 단지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교회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은 주일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되돌리신 출애굽과는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지 바람에 의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Cecil B. DeMille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펴서 읽었는데, 선생님,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밀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 음, 음, 내 말은, 그는 바람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신이었습니다. 글썄요,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때때로 배우지 못한 질문으로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글썄요, 왜 여자들은 배우지 못한 질문으로 방해하겠습니까? 글썄요, 그들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여성, 특히 그리스 여성은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이 부족하고 그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로마 여성의 경우, 일찍 결혼하고 빨리 재혼하는 등의 과부 생활을 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여성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인 유대 문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나 마케도니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일종의 혼합된 환경이다. 당신은 공공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내 말은, 당신은 집에 있지만 그것은 모임이고 여성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취향에 따라 다른 여성의 남편 앞에서 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리스 사람들도 영감받은 말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말하게 놔두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여자는 잠잠하라. 글썄, 그게 무슨 뜻이야? 상황으로 볼 때, 디모데 첫째와 둘째는 유일한 서신서에 있고,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여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배우기는 하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 여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아마도 한 가지 이유는 여성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토라를 몰랐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여자들이 집집으로 다니며 퍼뜨리고, 존재하고, 참견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용어 중 하나는 아마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든 피(Gordon Fee)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된 교육 맥락에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적어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어 본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단어의 모든 예를 인쇄하여 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말했다, 알았어,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과부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과부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들이 여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글썄, 과부들, 거기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소유한 집은 대개 과부들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그곳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창조의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멀리까지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거의 모든 사역을 허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역을 제한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니, 나는 다양한 사역을 하는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나는 그들의 사역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점에 있어서 더 많은 문화적 영향을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아주 좋은 주석을 쓰는 아주 좋은 친구들을 포함하여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어떤 텍스트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여성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Deborah 등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에 여성 목사로 지명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또한 특별히 목사로 지명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동료 사역자들에게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수네르고이(sunergoi)와 디아코노스(diakonos)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경우에는 각각 여성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때로는 어떤 텍스트로 시작하는지, 어떤 텍스트를 더 규범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의 규칙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여성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것이 제가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다양한 종류의 사역을 언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작업은 허용되지만 다른 종류의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온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다면 왜 그것을 제한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내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에게 다른 견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두는 여성이 회중 찬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NIV를 인용하여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간구하노니 이 여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내 편에 서서 나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 그 이름들이 인생의 책.

그는 계속해서 서로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바울과 함께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과 함께 일종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글, 로마서 16장 및 빌립보서 4장에서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의 집단이 언급된 곳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와 빌립보는 성적으로 진보적인 두 곳이었으며, 제국에서 가장 성적으로 진보적인 두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도시들 중에서 그 도시들은 아마도 제국에서 가장 성적으로 진보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에게 더 개방적인 사역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사역이 더 인정받고, 그들의 사역이 더 환영받는 곳에서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교회가 그분의 일을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8절부터 10절, 암플리아토스 16:8, 우르바누스 16:9. 둘 다 일반적인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동부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아마도 이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로마로 이주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Urbanus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시민에 의해 지명되고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로마 시민에 의해 해방되었다면 그 자신도 로마 시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목록에 있는 로마 시민 중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16.10, 아리스토틀레스의 가문. 이거 흥미롭네요.

가구에는 노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아리스토틀레스 가문의 노예와 해방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틀레스는 헤롯 대왕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로마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그 특정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그 가문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유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6.11, 권력자의 노예는 스스로 권력을 갖고 심지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부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로마의 가정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노예 제도와 매우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가정 노예 제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물론 여성은 어느 쪽이든 성희롱을 당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노예는 강력하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강력한 사람들의 해방된 사람들은 종종 매우 강력했습니다. 때때로 카이사르의 노예들과 확실히 해방된 카이사르의 사람들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헤로디아, 그의 이름은 고대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다시 볼 수 있듯이, 그의 이름은 그가 헤롯 가문의 종이거나 전 노예였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나르키소스의 집안. 로마의 규모를 고려하면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권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나르키소스 가문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권위 있는 일이었죠. 나르키소스는 클라우디우스의 자유민 비서였습니다.

그는 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금액은 4억 세스테르세스로 꽤 부자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사람이 벌려면 4억년, 벌려면 4억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만년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팔라스는 안토니아의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유민이었고 Agrippa II를 지지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그녀를 Agrippa Jr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녀를 Agrippa의 아내인 Germanicus와 구별하기 위해 그녀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이것이 제가 ADD이고 다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접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순환 추론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미안.

그래서 안토니아의 자유민인 팔라스는 아그리피나가 결혼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제 학생들은 그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메살리나의 처형이나 강제 자살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다른 여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피나와 결혼했을 때 나르키소스는 권력에서 물러났고, 또 다른 자유민인 팔라스는 그토록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팔라스야, 자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의 형제 펠릭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주지사가 될 수 있는 클래스에 속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피나가 이겼으니 팔라스가 이기고 나르키소스는 역할을 많이 잃었지만 네로가 집권한 직후인 54년까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일을 계속했고, 음, 나르키소스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Nero의 어머니는 Nero가 이전 황제 Claudius를 위해 다른 아내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 Nero가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녀의 죽음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왕좌의 또 다른 잠재적 상속자였던 브리타니쿠스의 만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선화를 언급한다면 그는 이 시점에서 죽었을 것이지만 최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의 이전 명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수선화일 수도 있지만, 유명하고 잘 알려진 수선화일 수도 있습니다. 16장 12절,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스.

모두 여자 이름이에요. 트리페나는 알려진 이름입니다. Tryphosa, 음, 그들은 Tryphena와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들이 쌍둥이였음을 암시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매였을 것이다. 그들은 같은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스(Persis)는 매우 희귀한 그리스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노예나 해방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페르시아에서 수입된 노예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중앙아시아, 아시아 출신의 노예이거나 해방된 여성일 수 있습니다.

루퍼스와 그의 어머니, 1613년. 이제 폴이 루퍼스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루퍼스의 형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가상의 친족 관계 언어인데, 신약성서에도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허구의 친족 관계 언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라고 말할 때와 같습니다. 2세기 초반 기독교인들이 “형제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저지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찬을 먹으며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여 식인죄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문자 그대로이지만 유전적으로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적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내의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많이 부르는데, 이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긴밀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Paul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미망인 일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에 의한 논증이고 남편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보다 침묵에 의한 논증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미망인이고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알려진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루퍼스와 그의 어머니는 그가 다른 곳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과부일 것입니다(막 15:21).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아마도 로마 교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로마 교회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을 먼저 받은 교회가 두 사람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이름.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스의 아버지입니다. 글썬요,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 6장 9절과 같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이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리버틴이나 심지어 로마 시민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많은 구레네 예루살렘 신자들이 흩어졌는데, 아마도 그 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고 그들의 운동의 일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 많은 키레네 예루살렘 신자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8.4와 11.20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구레네 시몬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구레네 출신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가 다소에 와서 그를 붙잡은 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1에서는 바울이 그 리더십 팀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로마를 위해 기록되었다면 이 매우 강력한 교회 전통은 마가가 분명히 로마에 있는 베드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중이 시몬의 아들 루퍼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찬가지로일 수도 있어, 루퍼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흥미롭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레네 사람들이 사는 곳의 민족성을 알 수 없습니다. 시몬은 일반적인 그리스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족장 이름인 시므온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몬 아펠바움(Simon Appelbaum)은 우리가 구레네, 특히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구레네에 관한 책 전체를 썼습니다. 그 중 1/3은 그리스인, 1/3은 리비아 토착민, 1/3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도 유월절 축제를 위해 거기에 있었거나 그곳으로 이사했다면,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배경 민족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로마서 16장 14절과 15절에는 많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경우 바울이 그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분명히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언급하지만 네레우스와 그의 여동생도 언급합니다. 그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인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인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력의 사람들만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인사를 보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이름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위험은 일단 시작하면 어디서 멈추나요? 그것은 제가 가끔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이름 중 일부인 Olympas는 아마도 그리스 남성 이름 Olympiodorus의 약어일 것입니다.

또한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이름이 하나 있는데, 줄리아(Julia)입니다. 이전에는 Rufus가 로마 이름이었고 나중에는 Quartus가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이름이란 라틴어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마친 후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교사와 학생은 이마에 입맞추거나 하는 등의 말로 서로 문안합니다.

유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했는데, 유다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 사람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맞춤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도망가면 올바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뽀뽀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에게 사용되었으며, 대개는 입에 뽀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마다 인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키스를 인사로 사용하는 방법과 인사 방식도 문화마다 다릅니다. 내 아내의 문화에서는 양쪽 뺨에 키스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문화에서는 입술에 키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포옹은 할 수 있지만 입술에 뽀뽀하는 것만으로는 위생적인 감각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상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평소에는 열정적인 키스가 아닌 가벼운 키스였다.

나중에 이것이 교회 내에서 남용되자 교회는 그것을 동성에게만 제한했고,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자라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입술에 가벼운 키스였다.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을 명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입맞춤에 대해 다섯 번 정도 언급합니다.

사실 그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인데,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나는 그들이 머리 덮개를 연습하는 문화에 있었고, 나는 머리 덮개의 문화적 배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머리 덮개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경이 무엇인지, 이 일이 처음에 행해진 이유를 가르치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세기 문화, 그리고 무엇을 다루었는지. 머리카락이 전부였어야 했는데, 더 동쪽으로 가면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학생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이 모든 문화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의 문화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어떤 문화에서든 머리를 가리지 않고 교회에 가는 여성은 성경에서 머리 덮개를 써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 덮개를 명령하는 것보다 다섯 배나 거룩한 입맞춤을 명령하고, 내가 방에 들어올 때 여러분 중 누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뇨,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머리 덮개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겸손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머리카락, 그것은 지중해 동부와 보수적인 집단에서 유혹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내 말은, 많은 상류층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랬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계급갈등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빛나갑니다. 그래서 키스, 키스의 배경. 2차 키스의 관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대 문자에서는 그다지 널리 발견되지 않았고, 파피루스에서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프란토는 내 키스를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는 단지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분열된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곧 동방의 교회들이라 하셨습니다. 21-2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할 예정인데, 여기서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인사 외에도 몇 가지 경고, 몇 가지 마지막 경고를 교회에 전하고, 교회를 격려합니다. 17-18절, 속이고 착취하는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교반기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먼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걸림돌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음, 나누기, 그것은 우리가 특히 로마서 14 :1부터 15:7까지 에서 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은 14:4, 13, 21절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편지 초반에 반대자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8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편지 앞부분에서는 반대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비록 분열을 일으키거나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할례를 삼가고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의 반대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거기에 왔는지 아니면 바울의 경고에 따라 그들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받은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는 또한 그들이 받은 가르침이 로마서 6장과 17절에서 디다케가 사용된 유일한 다른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음, 그들이 받은 가르침은 그들이 구원받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케리그마와 그 너머에 있는 예수 등에 관한 일부 가르침.

사도적 메시지, 사도적 가르침.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매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에 나타나기 전에 로마의 신자들이 나와서 그를 마중하고 도시로 가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별도 그룹으로 옵니다. 아마도 나뉘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업무 일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비록 로마에서라도 그가 빌립보서에서 가택 연금을 당할 때, 그것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가정할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면,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언급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빌립보서 3:19에서 언급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정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능합니다.

내 말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로마 교회에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미리 쓴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의 정경, 구약성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합치면 신약성서에서 얻은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도적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과 오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배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 특히 6장에서 영적인 종살이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정욕이나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욕망의 열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1:24, 1:26, 6:12, 7:5, 7:8, 13:14 등). 자, 배의 노예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다른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신 것뿐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자기 배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배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유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가 실제로 암시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2d절 바로 앞에 나오는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13. 문맥상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위장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의 노예는 실제로 환유와 같았습니다.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폭식을 의미했지만 모든 종류의 방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모든 곳에, 특히 필로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Philo는 실제로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집트 북부의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때때로 고대 작가들, 바울 이외의 다른 고대 작가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의 노예,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보다 더 높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주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까다로운 수사법은 16장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사학은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수사학자들은 철학을 더욱 존중하며, 우리는 미덕과 악덕에 대해, 실제로 사물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사물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학 자체로 사람들은 종종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Rhetorica ad herenium*에 대해 언급한 것 같은데, 맹세하에 거짓말을 하는 방법, 사람을 속이는 방법,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맹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Paul은 몰래 빠져나가려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도 멋진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바울은 설득력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침을 피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15장 15절에서 그는 담대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 아침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종종 경고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해 오셨지만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나는 여기서 수사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만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크레스톨로기아(crestologia)와 찬송가(eulogia)를 지칭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일종의 운율인 로지아로 끝납니다.

B. Dag, Bauer, Danker, Art 및 Gingrich는 크레스톨로기아를 부드럽고 그럴듯한 연설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믿고 싶게 만듭니다.

Eulogia는 당신을 설득하는 웅변적이고 아침하는 칭찬 연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중의 욕망을 이용하여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기 배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3, 베드로후서 2.1-3, 베드로후서 10-14절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며 청중의 악에 대한 잠재력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죄가 속이는 것처럼 그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7장 11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죄가 율법을 속이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은 속이고 있으며 그들은 죄의 대리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이 타락을 회상하는 것으로 봅니다(롬 5:12-21). 그리고 나는 폴이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면 그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 1620년에 그것에 대한 암시를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본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19절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그들에게 순종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경고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순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1장 8절에서 편지 서두에서 너희 믿음이 곳곳에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너희의 순종에 대해 모두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관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 :9.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 그것은 과장입니다. 누비아나 중국 등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즉, 소문이 돌았습니다. 음, 로마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는 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로마를 오가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 이 좋은 소식의 메시지가 이제 수도에도 전해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흥분시킬 만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와 함께 있는 근위병 중 일부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떻게 궁전에 퍼지고 있는지, 아마도 근위병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믿음의 순종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5절, 15절, 18절, 이방인의 순종을 장려합니다. 16:26, 이방인의 믿음의 순종을 장려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그들의 순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바울이 더욱 격려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는 또한 5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순종에 대해 말했고, 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6장 17절에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16장 17절에서도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의 주요 주제입니다. 믿음만큼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건물에 불이 났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단지 "알겠습니다. 이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인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인지하고, 연기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인지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과 20절로 넘어가면 아담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무죄하며, 악한 일에는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그는 5:12부터 5:21까지 아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순전하여 선한 것을 알고 선한 데 지혜롭고 순전하고 악한 데에 무지하라. 때때로 사람들은 제가 성경에서 귀신이나 그와 비슷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 주제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글쎄, 난 정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깊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성경의 다른 곳과 바울의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악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경험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악을 배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16장과 20절). 글썄, 뱀은 종종,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 전통에서 종종 사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하와가 뱀에게 미혹된 것 같이 너희도 미혹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11장 11절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글썄, 내 생각엔 그것들이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아담과 이브의 삶을 논한 후기 문서에서 유대 전통의 예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창세기에서 뱀에게 속임을 당했던 하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바울이 아마도 여기서 뱀의 관점에서 사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와의 씨는 뱀을 상하게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창 3:15).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뱀이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당시에 사탄이 실제로 뱀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탄이 단지 뱀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다른 유대 전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입니다.

나는 창세기를 좋아하고 아마도 그것이 사탄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창세기 교수들에게 말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우이든지, 하와의 씨는 뱀을 짓밟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모두 새 아담에게 속합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총만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곧 사탄이 그들의 발 아래서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유대교의 사탄은 참소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하사탄인 욥 1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적이어서 와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에서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초기 유대교에서는 사탄이 고발자, 유혹자,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계속하여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랍비 문헌에 사탄을 저주했던 팔리모(Palimo)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팔리모는 눈에 화살이 박혔다, 사탄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목욕탕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Palimo는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이 당신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그를 목욕탕에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학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 문헌에서 저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악한 자 등을 언급한 부부도 있고, 에베소서에는 마귀를 언급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 사람이 파문당할 때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그 영은 심판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혹자, 고린도전서 7:5,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게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15,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2:11,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 11:14, 사탄의 사자는 육체의 가시니라.

고린도후서 12:7,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음, 육체의 가시는 민수기 33장 55절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사기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호수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육체의 가시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글썄, 그것은 큰 논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연구에서 더 큰 논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중 하나는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근거하여 눈병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방법으로 기꺼이 눈을 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나 우울증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그가 직면한 박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린도의 대적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그것은 사탄이 그를 대적하기 위한 동기였습니다.

또한,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살전 2:18).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7장에서 그에 대한 폴리타르크의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폴리타르크가 사무실에서 은퇴할 때 그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그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사탄은 다양한 일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과 표적들과 미혹하는 기사들을 통하여 매우 명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탄의 표적과 기사도 있습니다.

글쎄요,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는 이 세션이 긴 세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짧은 세션을 해야 합니까?입니다. 아마 21절에서 27절 정도일 거예요. 그 후에 짧은 세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션은 아마도 이번 세션보다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6:7-20의 17회기입니다.